

I. 고전운문 영역

1. 정석가(작자 미상)	2
2.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5
3. 오백 년 도움지를~(길재)	7
4. 선인교 나린 물이~(정도전)	
5. 구지가(작자 미상)	
6. 꽃샘바람(이규보)	
7. 동동(작자 미상)	8
8. 만흥(윤선도)	14
9.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24
10. 시내 흐르는 골에~(신희문)	
11. 뫼벼들 가려 것거~(홍량)	
12. 님이 오마 하거늘~(작자 미상)	25
13. 나모도 바히 돌도~(작자 미상)	31
14. 사미인곡(정철)	33
15. 만언사(안조환)	41
16. 갑민가(작자 미상)	53
17. 집장가(작자 미상)	
18. 형장가(작자 미상)	
19. 정선 아리랑(작자 미상)	56
20. 제가야산독서당(최치원)	57
21. 야청도의성(양태사)	
22. 보리타작(정약용)	59
23. 저곡전가팔곡(이휘일)	
24. 논매기 노래(작자 미상)	
25. 리별이로다~(작자 미상)	
26. 정읍사(작자 미상)	69
27. 용비어천가(정인지)	71
28. 가마귀 싸호난 골에~(작자 미상)	
29. 가마귀 검다 하고~(작자 미상)	72
30. 뉘라셔 가마귀를~(작자 미상)	
31. 백사장 홍료변에~(작자 미상)	
32. 가마귀 가마귀를~(작자 미상)	
33. 현화가(견우노옹)	
34. 해가(작자 미상)	
35. 훈계자손가(김상용)	
36. 노처녀가(작자 미상)	
37. 상녀(작자 미상)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
 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
 머회뜰*** 서 있거늘 저것이 입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
 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앓말 하려 하고 **겉눈으로** 훑기 보니 작년 칠월 사흔
 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닳이런들 남 웃길 뻔
 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거머회뜰: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거둬들여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입'이라 여긴 '거머회뜰'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입'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입'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3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된다.
- ② 간접 인용을 통해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현실에 절망한 회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회준에 대한 회원들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색채어를 사용하여 고향 마을의 긍정적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허전하고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음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주인공 '회준'이 속한 청년회에서도 드러난다. 즉 피폐한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회원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청년회를 여가 선용 모임 정도로 여기는 소시민성, 실천력 없이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있는 인물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계몽하고자 했던 회준은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회준을 통해 근대적 지식인의 고독과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 ① 야학을 통한 농민 계몽보다 '장기'나 '테니스'에 열중하는 청년회의 모습에서 소시민성이 드러나는군.
- ② 회원들이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학생들의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군.
- ③ '장수철'과 같은 인물은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실천력을 상실한 지식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회준이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느끼는 '의식의 간격'은 근대적 지식인이 느끼는 고독이겠군.
- ⑤ 회준이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하다가도 '다시 고적'해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살고 싶습니다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接)을 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철사(鐵絲)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철수산(鐵樹山)*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민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선왕성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화로운 시절.
 *삼동: 세 뭍음.
 *철릭: 무관이 입던 옷.
 *철수산: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장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석가」는 서사 - 본사 - 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반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동일한 발상의 기법을 쓰면서도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사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 ① 1연의 '선왕성대에 살고 싶습니다'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 ② 2~5연의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마음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2~5연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기법이 동일하다.
- ④ 2, 3연의 '씩이 난다면', '피어난다면'과 4, 5연의 '헐게 된다면', '먹어야'는 생성과 소멸의 대칭 관계를 이룬다.
- ⑤ 6연의 '끈'이라는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진희는 아빠와 함께 여행을 하며 가슴이 설레지만 아빠는 진희를 보육원에 남겨 둔 채 사라져 버린다. 진희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숙희와 친해지면서 보육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간다. 그러나 숙희는 혼자 입양을 가게 된다.

S# 70. 공동 침실 - 내부 (밤)

잠을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는 진희, 벌떡 일어나 앉는다. 잠자는 아이들 사이로 숙희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빈 자리를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는 진희.

S# 71. 마당 - 외부 (낮)

탱자나무 울타리 안. 담벼락 사이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진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 쪼그려 앉아 있다. 탱자나무 그늘 너머로 햇볕이 가득한 빈 마당이 보인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진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 발자국 소리, 가까이 다가온다. 숙희의 작은 발부터 먼저 보이고, 이어 나무 안쪽으로 고개를 숙여 보는 숙희의 얼굴이 보인다. 못 보던 예쁜 새 옷을 입고 있다. 진희는 여전히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 진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숙희.

- 숙희 미안해.
- 진희
- 숙희 진짜 미안해.
- 진희

숙희, 잠시 진희를 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돌아서 걸어간다. 숙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진희.

통샷*, 빈 마당과 보육원 건물 지붕 위로 햇빛의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러간다.

S# 74. 현관 앞 - 내부 (낮)

㉡비가 내리고 있는 보육원 빈 마당. 적막하고 소산하다.

진희 혼자 현관 앞에 오두마니 앉아 내리는 빗발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단힌 철대문을 보고 있는 것도 같다. 사이. 뭔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희, 비가 내리는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비를 맞으며 행정건물 쪽으로 달려가는 진희의 뒷모습.

S# 75. 원장실 - 내부 (낮)

구 원장의 책상 앞에 고집스런 표정으로 서 있는 진희. 구 원장은 당혹스런 얼굴로 그런 진희를 쳐다보고 있다.

진희 전화번호는 몰라도 주소는 안단 말예요.

구 원장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래 주소가 어딘데?

진희 전주시 다가동 33의 5. 주소를 알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구 원장 ㉣(한숨을 내쉬다)

진희 찾아가 주세요. 가서 우리 아빠 만나야 돼요.

구 원장 (할 수 없다는 듯) 주소는 확실하니?

진희 찾기 쉬워요. 중앙 국민 학교 바로 옆이에요.

구 원장 알았으니까 가서 옷 갈아입어. 비 맞았으니까.

진희 진짜 가볼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구 원장 그래, 약속할게.

아직도 옷이며 머리칼에서 물을 뚝뚝 흘러고 있는 진희, 그 제야 한기를 느끼는지 바로르 떨면서 몸을 움츠린다.

S# 78. 행정건물 복도 - 내부 (낮)

진희, 원장실 방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진희. 침을 한 번 삼키고 각오한 얼굴로 다시 문을 두드린다.

S# 79. 원장실 - 내부 (낮)

구 원장과 마주 앉은 진희. 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던 진희,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묻는다.

진희 정말 맞게 찾아가신 거예요?

구 원장 틀림없어. 집 앞에 쌀가게 아줌마도 만났어. 니네 식구들 그 집에서 살았던 거 다 이야기해 줘.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㉞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언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문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문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대의 제사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음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자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섭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흥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흥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

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운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생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옵고 춘섭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종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종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옵는 한편, 인형과 춘섭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섭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건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31. (가)~(다)의 행렬을 아래와 같이 그림 기호로 나타내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		□
□	◇ □ ○	
○		◇ ○

- ① (가)의 행렬은 공간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행렬은 대화 참가자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다)의 행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④ (가)에 비해 (다)에서 □의 역할은 커진다.
- ⑤ (가)에서 (다)로 전개될수록 ◇와 ○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3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보 기>

떠들이 장꾼인 허 생원은 '이곳'에서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거둬서 시련을 겪은 후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한다.

- ① 산허리
- ② 산길
- ③ 큰길
- ④ 고개
- ⑤ 개울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자연 배경, 현재와 과거의 연결 구조, 한국적인 소재의 선택, 서정적 문체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중심인물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탐정식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① 허 생원의 옛 추억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 ② 한국적 소재인 꿩줄 찾기 이야기라서 독자가 쉽게 공감하겠군.
- ③ 허 생원의 과거 일이 작가의 글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져 독자에게 전달되었군.
- ④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⑤ 허 생원은 동이 모가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탐정식 질문을 하고 있군.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잊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오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없다.
어즈버, ㉤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34. (가), (나)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 ②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에 목적이 있다.
- ⑤ (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 ① ㉠: 어느 가을의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 ② ㉡: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군.
- ③ ㉢: 오백 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④ ㉣: 자연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군.
- ⑤ ㉤: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군.